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와 북·중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 형성 연구

저자
(Authors) 박병구

출처
(Source)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010.9, 47-64 (18 pages)

발행처
(Publisher)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100944>

APA Style 박병구 (2010).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와 북·중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 형성 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47-64.

이용정보
(Accessed) 경북대학교
155.230.47.63
2015/09/25 14: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와 북·중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 형성 연구

박 병 구(清華大學校)

목 차

- I. 문제제기
- II.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의 형성과 발전
- III.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 붕괴의 세계체제 요인
- IV. 북·중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의 형성 배경
- V. 국제정치신질서와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
- VI. 결론

I. 문제제기

E.H.Carr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한 국가의 진정한 면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심도있게 고찰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시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넓은 영토와 함께, 그 속에서 부침한 다양한 민족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역사공동체로서의 국가이다.

국제정치는 국제정치행위체(Actors); 국제정치질서(Order); 국제정치어젠다(Agenda)를 내용으로 한다. 먼저, 국제정치는 주요 국제정치행위체(Actors) 상호 간 힘의 역학관계이며, 대립과 통일의 변증법적 과정이다.¹⁾ 그 다음, 국제정치질서(Order)는 주요 국제정치행위체 간 상호관계를 처리하는 원칙과 상호 안전보장 기제의 총합이다. 치열한 국제정치 권력투쟁의 역사, 그 과정에서 권력주체가 바뀌고, 새로운 권력주체는 대외적으로 지배질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규칙(規則)·기제를 체계적으로 형성한다. 국제질서는 객관적인 실력을 전제로 한 것이고, 대외전략과 정책을 통해서 상호협력하며, 각종 세력들의 안정적인 조합을 통해 무정부상태인 국제사회를 일정한 질서가 있는 상태로 발전시킨다.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와 자본주의 세계체제 간의 충돌은 지역체제와 세계체제의 충돌; 폐쇄적 봉건자연경제와 자본주의 세계경제 간의 충돌이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어젠다(Agenda)는 국제질서가 추구하는 주제이자 지향점이다.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는 명분(名分)과 실리(實利)가 주제였고, 워싱턴체제·알타체제는 제국주의 전쟁(戰爭)과 프롤레타리아 공산혁명(共產革命)이 주제였다.

1) 梁守德, 洪銀嫻: 『國際政治理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7, p5.

본고는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가 시간적·공간적으로 이미 소멸되었으나, 북·중간에는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 Psychological Suzerain-Vassal Relations)'²⁾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필자는 북·중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를 탐구하기 위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 종식의 세계체제 요인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를 어떻게 흡수하였는가? 이 물음에 대해 필자는 독점자본주의의 탄생·제국주의의 침략과 조약체제·불건자연경제의 붕괴·해륙(海陸)충돌에서 맥락을 파악하였다. 둘째, 북·중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의 형성 배경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필자는 일제 식민지배와 독립운동·야타체제와 냉전·한국전쟁과 항미원조에서 해답을 찾았다. 한국전쟁에 대한 한국·북한·중국·미국의 기억은 모두 다르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항미원조(抗美援朝)'의 동기는 중국 동북의 안보라는 지정학적 고려, 사회주의 당제관계(黨際關係),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 등 다양하다. 필자는 '항미원조(抗美援朝)'의 심리적 배경을 중국과 북한 간의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에서 찾고자 한다.

II.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의 형성과 발전

고대 중국의 천하(天下)관은 한당(漢唐)왕조가 정립하고 유지해온 번속(藩屬)관계의 이론 중 하나이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천하(天下)관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한당(漢唐)시기의 번속(藩屬)관념과 번속(藩屬)관계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번(藩)'의 개념은 선진(先秦)시기에 이미 출현하였으며,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번(藩)'은 울타리이다. 이것은 번(藩)의 본래의 의미이다.³⁾ 둘째, '번(藩)'은 영역을 가리킨다.⁴⁾ 셋째, '번(藩)'은 보호벽·병풍처럼 가리어 막는 것을 의미한다.⁵⁾ 그래서 '번위(藩衛)·'번병(藩屏)' 등의 용법이 있으며, 국경민족정권, 내지 인근 정권이 중앙왕조에 신복(臣服)하는 것 역시 '번신(藩臣)·'외신(外臣)·'번부(藩附)' 등으로 칭하였다. 넷째, '번(藩)'은 포위한다는 의미이다.⁶⁾ 다섯째, '번(藩)'은 숨긴다는 의미이다.⁷⁾ 여섯째, '번(藩)'은 수레에 둘러친 막을 의미하였다.⁸⁾ 일곱째, '번(藩)'은 왕조가 제후를 분봉하거나, 하사한 토지를 의미하였다.⁹⁾ 여덟째, '번(藩)'은 신(臣)의 국경민족 혹은 국경정권을 가리켰다.¹⁰⁾ 정치적 차원에서 '번(藩)'의 의미는 중원왕조(中原王朝)의 분봉에 의해서 형성된 제후; 신복(臣僕)의 국경민족 혹은 국경정권이다. 중원왕조(中原王朝)의 통치자는 자신이 분봉한 제후·기타 약소정권·국경민족정권, 그리고 이웃 기타정권이 중원의 보호막과

2) 필자는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 Psychological Suzerain-vassal Relations)'란 "중주국(宗主國)과 번속국(藩屬國) 간에 종번관계가 이미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영향력에 편승해 안보를 담보하려는 정서이고, 강대국은 약소국을 자신의 영향권에 편입시켜 보호하며, 세력균형전략으로써 적대적 지역체제에 대해 끊임없이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우월의식"이라고 개념 정의하였다.

3) 『後漢書·陳勝項籍傳』: "以長城扞蔽胡寇, 如人家之有藩篱."

4) 『莊子·大宗師』: "吾愿游於其藩."

5) 『晉書·閔王承傳』: "宗室藩屏"

6) 『左傳·哀公十二年』: "吳人藩衛侯之舍."

7) 『荀子·榮辱』: "今以夫先王之道, 仁義之統, 以相群居, 以相藩飾, 以相安固邪."

8) 『國語·晉語』: "夫絳之富商, 韋藩木楗以過於朝."

9) 『後漢書·明帝紀』: "東平王蒼罷歸藩"

10) 『漢書·食貨志』: "王莽因漢承平之業, 匈奴稱藩, 百蠻賓服, 舟車所通盡爲臣妾."

병풍이 되길 희망하였다. 그래서 '번(藩)'은 곧 보호벽을 의미하였다.

속(屬)을 국경민족정권으로 지칭한 것은 한(漢)나라 부터였으며, 역사서에는 '속국(屬國)'으로 기재되었다. 일반적으로 속국은 '종주국(宗主國)의 번속국(藩屬國)'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국경민족에 처음 적용되었고, 중원왕조가 경내(境內)로 이진한 국경민족을 위하여 설치한 행정체제가 속국이였다. 이들 국경민족은 본 민족주체에서 벗어나 중원왕조의 정식 행정체제로 들어왔다.¹¹⁾

한당(漢唐)시기에 번(藩)·속(屬) 두 글자의 함의를 종합하였다. 번속(藩屬)의 함의는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다. 그러나 번(藩)과 속(屬) 두 글자를 함께 연결하여 사용한 것은 청대(清代)부터였고, 훗날 그 함의에 명시적인 변화가 생겼다. 첫째, 당시의 번(藩)은 번부(藩部)로도 칭하였는데, 오직 이번원(理藩院) 하의 몽고(蒙古)·신강(新疆)·서장(西藏)을 지적하는데 사용되었다. 두 번째, 속(屬) 즉 속국(屬國)은 한대(漢代)의 의미와는 달리 '번부(藩部)' 밖의 '부속국(附屬國)'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조선(朝鮮)·류구(琉球)·안남(安南)·면전(緬甸) 등이 그 예이다. 청대(清代)의 번속(藩屬)은 선진(先秦)시기의 번(藩)·속(屬)의 개념에서 나왔다. 청대(清代)는 번(藩)·속(屬)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였으나 전대(前代)의 번(藩)·속(屬)의 용법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 전대(前代)의 용법을 계승·발전시켰으며, 기본적으로 국경민족이 중앙왕조에 대해 충성했던 함의는 결코 변치 않았다. 중국 역사에서 한족(漢族)이 주체가 되어 세운 정권이든, 국경민족이 건립한 국경정권이든 핵심 지역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해서 모두 자신의 번속체계(藩屬體系)를 갖고 있었다.¹²⁾

'시간'적으로,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는 한대(漢代)부터 시작되었다. 당대(唐代) 이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는 정부 간 관계로 국한되었다. 즉 중화제국(中華帝國)은 그 부속국(附屬國)의 새로운 왕에 대해서 책봉(冊封)을 내렸고, 부속국(附屬國)은 중화제국(中華帝國)에게 시기에 맞춰 조공(朝貢)하였다. 그러나 송대(宋代)부터는 조공(朝貢)의 성질에서 큰 변화가 생겨, 조공관계는 본래의 정부 간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정부가 무역을 증시함에 따라 조공관계는 점차 일종의 무역 수단으로 변모하였다. 송대(宋代)부터 조공체계는 일종의 기체로서 동아시아 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의 원(元)·명대(明代)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청조(淸朝)에 들어와서 조공은 완전히 무역 수단이 되었다. 동아시아 조공체계는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첫째, 동아시아 조공체계는 중심국과 주변국 간 정치관계·무역 왕래의 합법화였다. 둘째, 정부가 무역을 증시함에 따라 동아시아에는 '상업네트워크(Business-Networks)' 형성의 기초가 다져졌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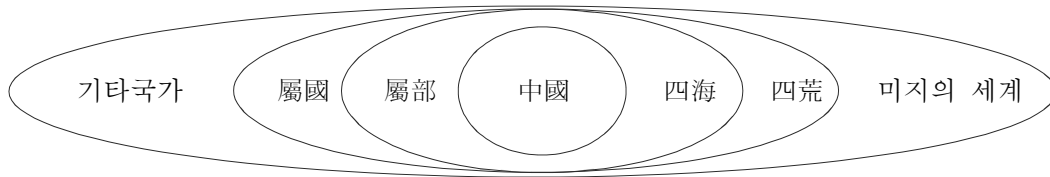
공간적으로, 중국의 국경 형성 중, 한족(漢族)은 중원지역에, 소수민족은 주변지역에 거주하였다. 선진(先秦)시기에 이미 중국(中國)과 '사이(四夷)'의 거주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구획되었다. 선진(先秦)시기에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天下)' 관념이 형성되었으며, 중국은 주변정권을 무단히 흡수하였다.¹⁴⁾

11) 李大龍: 『漢唐藩屬體制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年5月, pp1-3.

12) 李大龍: 『漢唐藩屬體制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年 5月, pp3-4.

13) 王正毅: 『世界體系論與中國』, 北京: 商務出版社, 2000, pp322-324.

14) 李大龍: 『漢唐藩屬體制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年5月, p5.

<그림1-1> 중국의 고대 동아시아 세계관¹⁵⁾

<그림1-1>은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의 공간적 범위이다.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에 중국 내부의 번부(藩部)와 토사(土司)가 중앙정부에 바치는 조공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다. 종번(宗藩)체제 내부의 번(藩)은 속국(屬國)을 가리켰고, 본질적으로 외국(外國)이다. 속국(屬國)과 번부(藩部)의 차이점은 속국(屬國)이 비록 번부(藩部)와 같이 중국을 종주국(宗主國)으로 삼았지만, 속국(屬國)에는 발달한 국가행정조직이 존재한 반면, 번부(藩部)는 국가행정조직이 전혀 없었다. 또 속국(屬國)은 왕왕 독립국가로 발전했지만, 번부(藩部)가 중국이외의 국가로 발전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¹⁶⁾

정치적으로 종번관계(宗藩關係)는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있을 수 없고, 땅에는 두 명의 왕이 없으며, 가정에는 주인이 둘일 수 없다'는 예치질서(禮治秩序)로 통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법제(宗法制)를 기초로 삼아 부권(父權)·부권(夫權)·군권(君權)사이의 등급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은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를 통하여 속국을 통제하였으며,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 이외의 다른 형식의 대외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는 종주국과 속국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였으나,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각자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축한 것이다. 번속국(藩屬國)이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로 편입되면, 타국으로부터의 침략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 국내정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반면 종주국(宗主國)은 국제적으로 명분을 얻었으며, 국경지역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¹⁷⁾ 당시 중국은 엄격한 의미로 현대적인 민족국가가 아니라, 중앙이 주변부를 흡수하고 선도하는 공동체였다.

Ⅲ.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 붕괴의 세계체제 요인

1. 세계체제의 함의

국제체제는 공간적 범위에서 지역체제와 세계체제로 나눌 수 있다.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는 동아시아 국제정치행위체간 지역체제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독점자본의 약탈을 기초로 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패권전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은 "세계체제란 하나의 실체이고, 이 실체는 노동 분업과 다원화된 문화를 구비하고 있다. 세계체제는 전 세계를 포괄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형식의 정치단위

15) 楊軍, 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年 8月, p169.

16) 楊軍, 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年 8月, p155.

17) 李元燁: 『中美兩國的朝鮮半島政策演進歷程研究』, 香港社會科學出版社有限公司, 2003, pp 290-291.

보다 더 크다."라고 설명하였다.¹⁸⁾ 월러스타인(ImmaueL, Wallerstein)은 세계체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국제 분업의 기초 위에 건립된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주기적인 방식을 통하여 운행되었다. 셋째,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자본축적의 기초 위에 건립된 체계이다. 넷째, 자본주의는 체계로서 운동과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변화는 경제 창조와 국가의 흥망을 통하여 발생한다. 다섯째, 자본주의 체제는 '극화(極化, Polarization)' 체계이다. 여섯째, 자본주의 체제는 역사체계이다. 세계체제가 하나의 분석단위이든, 역사의 현실이든,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세계체제는 경제적인 것이며, 제국·도시국가·민족국가와 같은 그러한 정치실체가 아니다. 월러스타인(ImmaueL, Wallerstein)은 때로는 세계체제를 세계경제로 칭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체제 각 부분 간 가장 기본적인 연계는 경제이기 때문이다.¹⁹⁾ 제국주의 국가들은 경제실력을 기초로 자본수출을 감행하였고, 경제적·영토적으로 세계를 분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지구적 범위의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가 출현하여 통일된 세계경제체제와 국제정치체제가 형성되었다.²⁰⁾

2. 독점자본주의의 탄생과 봉건자연경제의 몰락

국제정치체제는 15세기 전후 유럽 자본주의의 탄생과 발전에서 시작되었고,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신대륙 발견과 신향로 개척·해외식민지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국제분업을 통해 세계시장이 형성되었다. 17-19세기 유럽 주요 국가들은 프랑스대혁명·명예혁명 등 자산계급혁명을 완성하고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1760년대 제1차 산업혁명 후, 생산력 확대는 세계체제 형성의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자본의 속성은 끊임없이 팽창한다. 유럽의 자본주의는 값싼 생산요소를 찾아 본능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남미로 이동하였고, 아시아·아프리카·남미는 점차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되어갔다. 국제경제 교류의 확대로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19세기 중후부터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점차 자급자족의 봉건경제 지역과 국가로 확대되었고, 그곳에서 자본주의국가들은 염가의 원료를 구매하고, 통치를 공고화하며, 토지를 약탈하여 강제적인 국제 분업을 실시하였다. 자본주의제도 하에 1870년대부터 시작된 제2차산업혁명은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켰고, 사회적 부(富)는 소수의 독점자본가에게 집중되었다. 소수의 자본가가 생산과 자본을 독점하는 독점자본주의는 결국 국가경제와 정권을 통제하였고, 자본주의국가는 독점자본가의 이익대변자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자급자족적 봉건경제 상태에 머물러 있던 중국은 해외무역과 교역을 장려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쇄국정책(鎖國政策)'을 고수하였다. 청조는 1842년 영국과 남경조약(南京條約)을 체결할 때까지 외국과의 무역 활동을 광주(廣州) 한 곳으로 제한하였다. 아편전쟁 후, 중국은 봉건사회에서 반식민(半殖民)·반봉건사회(半封建社會)로 사회성질이 변화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아편전쟁 기간 동안, 서양 자본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침략한 목적은 중국의 문을 열어 상품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영국·프랑스 등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초기 상품수출에서 자본수출(資本輸出)로 중국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1894년 갑오중일전쟁(甲午中日戰爭) 후, 일본은 기존의 상품수출에서 정치차관

18) ImmaueL, Wallerstein, *The Modern World 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p15.

19) Imma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The states, the movement, and the civilizations*, pp14-15.

20) 梁守德, 洪銀嫻: 『國際政治理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7, p108-109.

(政治借款), 철로건설, 광산개발, 공장설립, 은행설립과 같은 자본수출(資本輸出)의 방법으로 중국 시장을 점령해 나갔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공장설립은 일본 독점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다. 일본군은 함락지역 경제에 대해 약탈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일본의 방침은 점령지 경제지역을 일본에 종속시키는 부용경제(附庸經濟)로 만드는 것이었다. 열강들의 중국에 대한 자본수출(資本輸出)은 중국 봉건자연경제의 해체와 민족자본주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그 원인은 자본수출이 중국의 상품시장과 노동력시장의 확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료자본과 민족자본기업이 탄생하기 전, 서구 자본주의는 중국을 강제로 개방시키고 중국 통상항구에 기업을 건립함으로써 중국에서 민족자본주의·산업노동자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근대 시기 중국 민족자본주의가 크게 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는 반봉건반식민(半封建半殖民)이라는 중국 사회형태의 제약과 한계 때문이었다. 중국의 민족자본주의는 외국 기업들의 중국시장 개척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한 것이다. 중국의 노동자계급은 1850~60년대 관료자본주의와 민족자본주의의 출현에 따라 발전되었다. 또 중국 '사(士)' 계급은 서구 자본주의의 물결이 도도히 밀려오는 시대 상황 하에서 현실과 타협하여 개혁 지향적으로 변신하였다. 실례로, 위원(魏源)은 『해국도지(海國圖志)』에서 '서양의 군사기술을 배워 서양을 제압하자(爲夷長技以制夷而作)'라고 주장하였다. 위원(魏源)이 『해국도지(海國圖志)』를 집필한 목적은 중국인으로 하여금 서양 세계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였다. 위원(魏源)은 『해국도지(海國圖志)』에서 서양의 대포와 선박 제조법을 체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해국도지(海國圖志)』는 아편전쟁 후 신사상(新思想) 맹아의 대표작이다. 중국자본주의의 발전 방안을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홍인간(洪仁玕)의 『자정신편(資政新編)』이다. 개혁의 요구가 일반화한 상황에서 홍인간(洪仁玕)은 자신의 지식을 기초로 1859년 『자정신편(資政新編)』을 편찬하였다. 『자정신편(資政新編)』은 서구기술·문물도입과 서구열강과의 우호적 외교·교역관계 증진에 의한 중국의 국부(國富)와 부민(民富)의 증진 등 점진적인 근대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士)' 계급이 양무운동·무술변법을 거치면서 자본가계급으로 변신을 시도한 것은 '사(士)' 계급의 생존 본능이었으며, 진정 중국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결과 중국은 제국주의의 침략지로 전락하였고, 국공내전의 혼란기로 접어들었다.

3. 해륙(海陸)충돌과 조약체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형성 이전에 이미 유라시아는 자신만의 독특한 생존공간을 형성했고, 몽고제국이 바로 이 공간범위였다. 몽고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생존공간을 확대해감에 따라 근대 세계에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나타났다.²¹⁾ 19세기 이전, 중원지역이 중국·동아시아의 핵심지역이 되었다. 당시 동아시아체제의 상업지역은 대부분 북방의 장안(長安)·낙양(洛陽)·개봉(開封)·북경(北京) 등 내륙도시에 집중되었다. 명조(明朝)에 들어서 연해지역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나, 만주족이 중원으로 진입하면서 연해지역 발전이 억제되었다. 19세기 일본이 부상하기 전,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정치와 문명의 중심은 중국의 황하(黃河) 유역과 장강(長江) 유역이었다. 반면, 동남아·한반도·일본은 줄곧 주변지대에 머물러있었다.²²⁾

그러나 중원 중심의 무역체제도 15세기 말, 신대륙 발견과 증기동력기(蒸氣動力機)의 발명

21) 浦野起央 著, 梁云祥, 梁星 譯: 『21世紀亞洲的選擇』, 北京:中國社會出版社, 2003년 p141, 재인용, 박명규: 『한중일 석유전쟁』, 서울: 한스미디어, 2008, p50.

22) 王正毅: 『世界體系論與中國』, 北京:商務出版社, 2000, p325.

으로 인류는 연근해 중심에서 벗어나 원양항해가 가능해졌으며, 무역과 투자의 지리상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다. 이제 유럽은 지중해와 유럽 대륙에서 벗어나는 인류 해양문명 개척의 신기원을 열었다. 23) 특히 산업혁명 후, 생산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생산력이 향상되자, 영국을 위시한 서구자본주의국가들은 중국을 단순한 중계무역의 대상이 아니라 연료공급지와 상품시장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1840년대부터 자본주의 열강은 잇따라 중국을 침략하였다. 1840년 영국은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을 협박하여 최초의 불평등조약인 남경조약(南京條約)을 체결하였다. 남경조약(南京條約) 체결로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배상금 2,1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연안도시 광주(廣州)·복주(福州)·상해(上海)·하문(廈門)·영파(寧波) 등 다섯 항구를 통상항구로 하였고, 협정관세를 실행함으로써 중국관세율을 반드시 영국과 공동으로 의정(議政)하게 되었다. 미국도 청(淸)정부와 망하조약(望廈條約)을 체결하고, 프랑스는 황포조약(黃埔條約)을 체결하였다. 1856년과 1860년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중국을 침략하여 청(淸)정부에 천진조약(天津條約)과 북경조약(北京條約)을 체결하였다. 러시아와 미국도 청(淸)정부를 압박하여 천진조약(天津條約)을 체결하였다. 1883년에서 1885년까지 프랑스는 다시 중국 침략전쟁을 일으켜 중법신약(中法新約)을 체결하였다. 1894년에서 1895년까지 일본은 갑오중일전쟁(甲午中日戰爭)을 일으키고 승리하여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을 체결하였다.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으로 중국은 대만, 요동반도(遼東半島), 뎡호열도(澎湖列島)를 일본에 할양하고 2억량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1895년부터 동아시아 국제체제는 일본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형성으로 인해 동남 연안(沿岸)지역인 상해(上海), 광주(廣州), 복건(福建), 동경(東京), 싱가포르가 동아시아의 중심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경제구조와 상응하여, 동아시아 국제체제는 정치상 '중심-반(半)주변-주변'의 3중 구조가 형성되었다. 24) 1900년,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을 침략하고 청(淸)정부를 압박하여 신축조약(辛丑條約)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철저히 반식민(半殖民)·반봉건사회(半封建社會)로 전락하였다.

계속해서 제국주의는 고액의 독점이윤을 탈취하기 위해서 세계분할을 시도하여 국부전쟁과 제1차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제1차세계대전은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다. 1914-1918년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제국주의국가들이 '베르사이유조약'을 통해서 서유럽에서의 국제관계를 잠시 조정했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모순은 격렬해졌다. 미국은 제1차세계대전 전성국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에 밀려 전리품을 만족스럽게 얻지 못하자 극동·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질서를 조정하기 위해서 1921-1922년, 워싱턴회의를 소집하고, 워싱턴체제를 구축하였다. 극동과 태평양 문제는 워싱턴회의의 중요 의제 중 하나였으며, 그 핵심은 중국 문제였다. 중국은 제국주의의 극동·태평양 쟁탈의 주요 대상이었다. 25) 그 결과 극동에서 미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였고, 미·중·일 간의 갈등은 심화되어갔다. 특히 9국공약(九國公約)은 제국주의 열강이 수립한 중국에 대한 연합통치였다. 26) 제1차세계대전 이전, 비록 미국 국내에서 고립주의의 목소리가 컸으나, 제1차세계대전 후 미국은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고립주의로 회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근본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국력이 급격히 팽창하여 대외확장의 팽창욕구가 강렬하였기 때문이다. 27)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는 중국과 주변국가 간의 관계이나, 자본주의

23)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서울: 한스미디어, 2008, p260.

24) 王正毅: 『世界體系論與中國』, 北京: 商務出版社, 2000, p326.

25) 方連慶 主編: 『現代國際關係史(1917-1945)』,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p86.

26) 方連慶 主編: 『現代國際關係史(1917-1945)』,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p90.

27) 袁明主編: 『國際關係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p151.

세계체제는 유럽과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대륙의 경계를 뛰어넘는 '대륙 간 관계 (Intercontinental Relations)'였다.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의 명분(名分)과 질서(秩序)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객관적 실력과 제국주의 무력 앞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고, 강력하고 넓은 범주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되었다.

IV. 북·중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의 형성 배경

1.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독립운동

1840년 아편전쟁 후, 동아시아 지역체제에 변화를 줄 외부세력(일본·러시아·영국)이 출현하였고, 조선은 바로 이들 세력과 중국 간 역량의 모순이 충돌한 초점이 되었다. 1870년부터 일본은 『강화조약(江華條約)』²⁸⁾·『인천조약(仁川條約)』²⁹⁾·『한성조약(漢城條約)』³⁰⁾ 등을 통해 조선에서 확장의 기초를 다졌다. 이들 조약의 관건은 중국과 조선의 종번관계(宗藩關係)를 부정하는데 있었다.³¹⁾ 제정러시아는 1870-80년대 이후, 조선과 중국 동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1880년대 중기부터 조선을 러시아의 보호국으로 만들 것을 기도하였다. 러시아 아무르주(州)총독은 당시 러시아 짜르 황제에게 올린 상주문에서 "현재 우리가 응당 힘써야 할 것은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동방의 약소국이므로, 만약 강대국이 보호하지 않으면, 사직(社稷)을 결코 유지할 수 없게 된다.....러시아는 조선 보호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은 태평양과 중국에서의 우세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기본정책에서 출발하여, 조선을 동북아의 완충지역으로 만들려하였다. 러시아와 접제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영국은 러시아가 조선을 탈취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결국 1885년 4월, 영국은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하였다.³²⁾

비록 청(淸)과 조선의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가 상호내정불간섭원칙 하에 무역관계로 연결되었으나, 19세기 말, 청(淸)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다투고, 동북아에 새로운 외부세력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조선에 대해 기존의 명의상·상업상의 조공종번(朝貢宗藩)관계를 실질적·정치적 조공종번(朝貢宗藩)관계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조치로써 1885년 9월, 청(淸)정부는 흥선대원군을 감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흥선대원군을 석방하여 조선 정국을 견제하였으며, 11월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주한판사대신(駐韓辦事大臣)으로 임명하였다. 위안스카이(袁世凱)는 훗날 조선에 대해 '감국(監國)'의 권리를 행사하고, 조선 정무(政務)에 직접 간여하였다.³³⁾ 1894년 갑오중일전쟁 때 개입을 통해 조선과의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를 더욱 강화하려했던 청조(淸朝)는 일본 해군에게 참패를 하고, 결국 청과 조선의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는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의 체결로

28) 제1조: 조선은 자주(自主)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9) 제5조: 일본공사관에 병사 약관을 두어 경비하게 하며, 병영의 설치·수선은 조선이 책임질 것. 제6조: 조선은 대관(大官)을 파견하고 국서를 보내어 일본에 사과할 것.

30) 제1조: 조선국은 국서를 보내 일본국에 사의(謝意)를 표명할 것.

31) 熊志勇, 蘇浩: 『中國近現代外交史』,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5, p149.

32) 戴逸, 楊東梁, 華立: 『甲午戰爭與東亞政治』,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年, pp12-13.

33) 熊志勇, 蘇浩: 『中國近現代外交史』,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5, p149.

종료되었다. 그 후, 중·조 관계는 양자 간 '평면모델'에서 다자간·다층적 '입체모델'로 전환되었다.³⁴⁾ 한스·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1세기 전 조선의 국제지위는 중국의 패권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중·일 간의 경쟁이 결정하였다고 평가하였다.³⁵⁾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의 체결로 중국과 한반도 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가 자연 소멸된 것이 아니었다.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년 10월-1910년 8월 22일)은 여전히 중국과의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청(淸)과의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를 회복함으로써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분쇄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일제의 무자비한 한반도 침탈과 식민지화가 청(淸)과의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당시 조선의 국가이익과 청(淸)의 목표는 상당 부분 일치하였으며, 양국 관계개선의 기초가 되었다. 실례로, 1896년 11월 20일, 청(淸)정부는 탕샤오의(唐紹儀)를 주한총영사(駐韓總領事)로 임명하였고, 1898년 쉬쇼우밍(徐壽明)을 주조선공사(駐朝鮮公使)로 파견하여, 양국 간 새로운 평등 외교의 장을 열었다. 쉬쇼우밍(徐壽明)이 휴대한 국서(國書)에는 "대청국황제(大清國皇帝)가 대한국황제(大韓國皇帝)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중국은 귀국의 독립자주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이것은 청조(淸朝)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1899년 9월 11일, 청조(淸朝)와 조선은 『중한통상조약(中韓通商條約)』을 체결하고, 상호 사절과 영사를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중국과 조선이 조공종번(朝貢宗藩)관계를 철저히 종식하고, 평등관계 수립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이 '통감(統監)'을 강행하자 청(淸)정부는 사절을 즉각 철수시켜 중국과 조선의 국가 간 외교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었다.³⁶⁾

중국과 조선 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가 이미 종식되었으나, 조선은 한일합방 후, 독립운동 과정에서 중국 대륙에 대한 '심리적종번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중국 역시 조선에 대한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 회복을 위해 조선에 대한 지원과 예측화를 병행하였다. 한일합방 후, 조선독립운동조직은 중국의 각 정당·정파와 모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중국 국내정치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국공(國共) 양당의 조선 독립운동에 대한 영향이다. 국공(國共) 양당의 분열과 협력은 모두 조선 독립운동조직에도 영향을 미쳤다. 1938년과 1940년 성립된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과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역시 각각 국민당 군사 당국에 예측되었으며, 대일 작전에 직접 참가하였다. 항일전쟁 후기, 국공(國共) 양당의 마찰과 충돌이 갈수록 격렬해지자, 양당의 정치·사상의 대립 역시 조선 독립운동조직의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국민당은 항일전쟁 초기 조선독립운동 각 당파의 정책을 지지하다가, 김구(金九)가 이끄는 한국독립당·한국임시정부·한국광복군을 전력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 원인은 국민당이 김약산(金若山)과의 '친공(親共)' 경향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³⁷⁾ 반면 중국공산당은 조선독립당과 조선의용군을 지원하였다. 중국공산당과 국민당 두 개의 성질이 완전히 다른 정치파벌의 존재로 인해 중국은 조선독립운동 방면에서 분기(分岐)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과 한반도는 이 시기부터 이데올로기 요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향후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민정부는 사실상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할 때,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이미

34) 楊軍, 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年 8月, pp218-221.

35) 楊軍, 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年 8月, p223.

36) 楊軍, 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年 8月, pp196-197.

37) 石源貨主編: 『韓國獨立運動血史新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6, pp84-85.

실질적으로 주권국가 간의 관계였으며, 국제규범에 따라 처리하였다. 38)

한국광복군은 성립 초기, 광복군의 명칭·편제·고급인사·훈련계획·군비 등 모두 중국 당국이 결정하였다. 광복군의 성질은 무엇인가? 한국 측은 마땅히 한국임시정부 지도하의 군대이고, 중국 군대와는 동맹 국가 군대 간의 관계이며, 중국군사최고영수는 한중연합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지부대(支部隊)를 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과 한국의 지위는 다르므로, 중국 군대와 한국 군대를 같이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정부군사위원회관공청(國民政府軍事委員會辦公廳)은 광복군은 외국 국적의 사병이 조직한 중국 군대이며, 모두 중국 군대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44년 한국의 강력한 요구로 한·중 쌍방은 협상을 통해 광복군을 한국임시정부로 예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임시정부가 경제적 곤경에 처해있을 때, 중국정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었다. 이런 지원은 모두 보조비(補助費) 명의로써 지원되었다. 한국임시정부의 주권의식이 갈수록 강해짐에 따라, 김구(金九) 선생은 중국 당국에 대해 보조(補助) 명의를 사용하지 말고, 국제관례에 따라 임시정부가 중국정부에 차관(借款)을 빌리는 것으로 하며, 장래 광복 후 신정부가 차관을 상환하도록 하였다.39)

1910년 한일합방 후, 대량의 조선인들이 중국 동북 지방으로 건너와 그곳에서 일본 침략자에 대한 투쟁을 시작했다. 중국에서 항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중국의 북부 지역에 산재해있던 조선인들의 각종 항일세력도 점차 연합하기 시작했으며, 일부는 중공과 팔로군에 소속되어 지휘를 받았다. 김일성은 1930년 초, 중국 동북 지방으로 건너와 중공중앙(中共中央)의 위임을 받아 길림성(吉林省)에서 항일 유격운동을 조직하고 연대와 사단급 정치위원을 역임했으며, 동만주(東滿洲) 지역 주요전선의 지휘관이 되었다. 1945년 8월 11일, 주덕(朱德)은 연안에서 제6호의 명령을 공포하여, 조선의용군은 즉시 팔로군과 함께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동해 위만주국(偽滿洲國)을 소탕하고, 동시에 조선의 해방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40)

한국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중국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표면적으로 비록 한반도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심리적종편관계'를 탈피하지 못하였다. 반파시스트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음에 따라, 강대국들은 전후 국제질서 안배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를 포함한 극동 지역에 미·소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극동지역은 미·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게 되었다. 중국 정부가 한국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과 독립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에 친중(親中) 정부를 수립하려던 구상은 미국과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 알타체제와 냉전

국제정치구질서의 함의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제국주의전쟁'과 '공산혁명'이다. 국제정치구질서는 유럽30년전쟁 후의 베스트팔렌체제; 나폴레옹 전쟁 후의 비엔나체제; 제1차세계대전 후의 베르사이유-워싱턴체제; 제2차세계대전 후의 알타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제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워싱턴체제와 알타체제였다. 알타체제는 미국의 통제 하에 있던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국가; 아시아·아프리카·남미 신생 독립 민족국가가 상호 견제를 이룬 양극체제였으며, 미·소 대국 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세력균형체제였다. 알타체제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세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

38) 楊軍, 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年 8月, pp220-221.

39) 楊軍, 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年 8月, pp221-222.

40) 선즈화(沈志華) 저, 최만원 역: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서울: 선인, 2010년, pp354-356.

었다. 그러나 1945년 반파시스전쟁 승리 후, 미국과 소련은 공동의 적이 소멸되었고, 미·소 대국 간의 동맹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결국 반파시스전쟁을 위한 미·소 동맹이 이 데올로기의 대립으로 파열되었다.

전후,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경제적·정치적·전략적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었다. 미국으로서는 세계 각 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 식민세력을 약화시키고, 공산주의의 영향을 억제하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를 전면적으로 통제할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였다. 투르만은 1947년 세계는 민주와 독재로 나뉘어졌다고 선포하고, 정치적 대결·경제적 봉쇄·군사적 포위 전략을 주창하였다. 1949년 1월 20일, 투르만대통령은 재선 취임연설에서 미국 외교의 4대 중점 행동원칙을 제안하였다. 첫째, 유엔 지지. 둘째, 세계경제부흥계획(마셜플랜) 계속 추진. 셋째, 자유국가와의 우호협력 강화, 침략 위협 반대(NATO 설립). 넷째, 미개발지역에 대한 기술원조. 전자 3개항은 모두 미국이 전후 이미 추진해왔던 조치였고, 마지막 항은 새롭게 제안된 전략이었다. 1949년 6월 24일, 투르만은 이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회에 특별문건을 발송하고, 만약 아시아·아프리카·남미 지역을 지원하지 않으면, "자유가 적대세력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소는 협력에서 대결 구도로 전환하였고, 조지·케난(George F. Kennan)의 '봉쇄이론(封鎖理論, Management of blockade)'이 풍미하기 시작하였다. 미·소는 전후 세계질서 구축과 유럽 등 일련의 국제문제에서 모순과 충돌이 갈수록 첨예화되었다. 새로운 국제정세에 직면하여 투르만은 루즈벨트가 설계한 미·소 간 협력을 통해서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전략구상이 국제정세 변화에 적응할 수 없으므로, 미국은 대외전략 특히 대소련 전략과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후 미국의 대외전략은 '선(先) 유럽·후(後) 아시아'였고, 유럽이 미국 대외확장 전략의 중점이었으나, 중국 공산혁명의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미국의 동방전선에 타격을 주었고,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의 중점을 일본과 조선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미·소 대립은 전 지구적으로 팽창하고 있었으며, 구조적으로 충돌의 지점이 한반도가 되었다. 미국의 지원 하에, 남한에는 1946년 2월 '민주의회'가 단독으로 수립되었고, 이승만을 의장으로 임명하였으며, 1947년 6월, '남한과도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1947년 9월 26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은 미국에 대해 1948년 동시에 한반도에서 철군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 의해 거절되었고, '미소공동위원회' 자체도 미국에 의해 10월 18일 업무가 종료되었다. 그 후, 미국의 조종 하에 제2차 공동위원회는 1947년 11월 14일 '유엔조선임시위원회'를 성립·통과시키고, 미국에게 한반도 선거 감시와 정부 수립·군대 창설 권한을 부여하였다. 1948년 5월 남한에서 선거가 실시되었고,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되었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어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임시군사협정'과 '한미경제원조협정'을 체결하고, 남한은 미국의 정치·경제·군사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소련의 지원 하에,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북한은 소련과 1948년 10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중국과는 1949년 10월 6일 수교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각각 남한과 북한에 독립적·대립적인 정권을 성립시켰고, 한반도의 정치 분열이 최종 형성되었다. 결국 '38선'이 남북한의 '법정' 분계선이 되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안정적인 입지 확보를 위해, 아시아에 대한 신정책을 제정하고, 군사·경제·기술 원조방안을 내놓았다. 1950년 1월 4일, 투르만은 국회가 '기술원조와 자본투자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1950년 6월 5일, 미국은 제81차 국회 제2차 회의에서 '대외경제원조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개발지역 기술원조' 항목에 '국제개발법

안'을 삽입시켰다. 이 법안은 6월 5일 투르만이 서명하여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대외경제원조법안'은 미국이 반공산주의와 기술원조를 기치로 내걸고 아시아·아프리카·남미로 진출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외경제원조법안'은 미국 민간기업의 독점자본 수출을 가져왔고, 미국 공업발전을 위한 판매시장과 원료공급지를 제공하였다. 제국주의가 원료와 시장을 약탈하기 위해 식민지전쟁을 감행했듯이, 미국 역시 아시아의 공산세력인 중국에게 한반도에서의 영향력과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시아에 대한 원조법안을 제안했다. 41) 당시 투르만 대통령과 미 국무부는 한반도에 대해 첫째, 미·소 냉전 시각에서 한반도는 사상투쟁의 전쟁터이고, 아시아에서의 승리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이다. 둘째, 한반도는 동·서가 극동에서 벌이는 세력쟁탈의 축소판이며,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의 제도경쟁을 상징하므로, 군사적인 가치 유무를 떠나서, 비공산주의 남한정권의 수립은 미국에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3. 한국전쟁과 항미원조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항미원조(抗美援朝)'의 배경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 동북안전에 대한 고려; 마오쩌둥(毛澤東)이 혁명에 대한 신념과 의지 및 미제국주의를 격파하려는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이것을 일종의 혁명을 위한 동력과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⁴²⁾ 필자는 '항미원조'의 배경을 중국과 한반도의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불과 이틀 만인 5월 27일, 공개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적으로 한국 군대를 지원할 것임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마오쩌둥은 1950년 6월 28일, 중앙인민정부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아시아의 일은 아시아 인민이 '관리(管理)'해야 하며, 미국이 '관리(管理)'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조선의 내정(內政)에 간섭(干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⁴³⁾ 중국은 "한반도의 문제 해결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의 '참여(參與)'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당연한 권리로 간주하였다.⁴⁴⁾ 1950년 9월 22일, 중국외교부는 "중국인민은 영원히 조선인민의 입장(入場)에 설 것이며, 미국의 '확전(擴戰)' 음모를 엄중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9월30일, 미군이 서울을 수복했을 때, 조우은라이(周恩來) 중국 총리는 "중국인민은 외국의 '침략(侵略)'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제국주의자의 '인접국(隣接國)'에 대한 침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0월 3일, 조우은라이(周恩來)는 주중인도대사 파니카르(Panikar)에게 "만약 미군이 38선을 월경하면, 우리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관리(管理)'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45) 이상, '관리(管理)'·'참여(參與)'·'침략(侵略)'·'확전(擴戰)'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체제에서 '주변(周邊)'지역으로 밀려날 위기감 때문에 '항미원조'하였다.

중국에게 한국전쟁은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과 연계된 문제였다. 중국은 한국전쟁과 인도차이나전쟁을 연계하고, 국공(國共) 내전에서 미·중 충돌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과 인도차이나전쟁의 발발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제1차세계대전 후 설립된 국제연

41) 方連慶, 劉金質, 王炳元主編, 『戰後國際關係史』(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pp75-76.

42) 선즈화(沈志華) 저, 최만원 역: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서울: 선인, 2010년, pp304-305.

43) 『當代中國外交』,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년 5월, p35.

44) 김한규: 『한중관계사Ⅱ』 마르케, 1999, p993.

45) 『周恩來外交文獻』, pp24-25.

맹은 영국과 프랑스가 조종하였고, 제2차세계대전 후 설립된 국제연합은 미국이 조종하였으며, 유엔군은 평화수호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용병이라고 폄하하였다. 당시 중국의 유엔대표가 중화민국(中華民國)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중국은 유엔을 미국이 조종하는 국제기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논리적 연장선에서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및 유엔군 결성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남·북'대립을 객체화하고, '중·미'대립을 주체로 인식하였다. 중국은 미군이 인천상륙 작전을 감행하기 1개월 전 이미 미군이 38선을 월경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다. 미군이 인천상륙에 성공하고, 미군이 이미 38선을 넘은 상황 하에서, 중국은 네루 인도총리가 이미 3국 외상회담에서 38선을 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만약 38선을 넘는다면 유엔에서 통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38선을 넘었고, 그 다음 목표는 중국이었다.⁴⁶⁾ 중국은 만약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패한다면, 미군이 압록강 강변까지 진격하게 되고, 결국 중국 동북 지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라는 입장이었다.⁴⁷⁾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우열을 가리지 않으면 사회주의 건설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항미원조 전쟁을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전쟁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자본주의는 곧 제국주의이므로 항미원조는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숭고한 이념전쟁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 북부와 중국 동북은 영토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시종 조선을 자신의 안보를 책임지는 '방어벽(藩)'이라고 인식하였다.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 안보의 '보루(藩)'이며, 조선에 대한 외세의 개입을 자신의 '세력범위(藩)'와 '영향력(藩)'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국전쟁을 촉발시켰고, 한국전쟁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체제 구축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갑오중일전쟁 후,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었으나,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국제지위를 제고하였고, 한반도에서 다시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

1961년 7월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고 7월 6일, 소련과 『북소우호조약』을 체결하였다. 1961년 7월 11일, 김일성은 베이징에서 조우엔라이(周恩來)와 『중조우호조약』⁴⁸⁾을 체결하여 북·중 관계는 역사상 최고의 우호시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시작한 중·소 대립 상태가 1965년까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북한은 중립을 견지하면서도 인정(人情)·도의(道義)상 중국 쪽으로 더 기울었다. 일례로, 1963년 김일성은 항미원조 당시 상황에 대해 "지원군 전후(前後) 조선에서의 8년, 8년의 시간은 짧지 않다. 그래서, 감정이 깊다.....같이 싸우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건설하고, 인연이 아주 깊다. 소설을 쓰도 다 못 쓸 것이다. 지원군이 조선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⁴⁹⁾고 설명하였다. 중소분쟁 하에서 북한은 중국을 입장을 고려하여 1963년 북한 건국 15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소련의 현대수정주의에 반대한다."⁵⁰⁾고 역설한 것은 중국과 북한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잘 설명한다.

46) 『周恩來政論選(下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年, p683.

47) 方連慶, 劉金質, 王炳元主編, 『戰後國際關係史』(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p183.

48) 『중조우호조약』은 만약 일방이 수정과 중지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만기 전 반년(半年) 내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약은 20년 자동 연장된다. 『중조우호조약』은 1981년, 2001년 두 차례 자동 연기되었으며, 현재 유효 기간은 2021년까지이다.

49) 『劉少奇主席訪朝時拜會金日成首相談會記錄』, 中國外交部解密檔案, 203-00566-05.

5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15주년 경축년에서 한 김일성 동지의 연설",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p7-8.

V. 국제정치신질서와 중국 외교정책의 변화

1. 국제정치신질서의 함의

1945년 후, 일본·한국·동남아 지역·대만·홍콩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주변지대가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무역(GATT)·금융(IMF, IBRD)·화폐기제(Bretton Woods System) 등을 이용하여 국제무역을 실행하였고, 본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 자본유동의 국제화에 직면하여, 중국은 어떻게 국제경제체제를 활용하여 중국경제를 신속히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냉전 시절, 중국은 줄곧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외곽에 처해있었다. 반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중심지역은 자본·기술을 신속히 축적하였다. 현대 세계경제체제의 기제는 주로 선진국이 제창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경제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경제체제에 편입하여 자본유동의 국제화를 충분히 이용하고, 세계경제체제를 점차 개도국과 중국의 발전에 유리하도록 개조하는 대열에 참여하였다.⁵¹⁾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역할과 임무에도 전환이 이루어졌다. 중국 외교정책 조정의 국내외 배경을 보면, 먼저, 1978년, 제11차 삼중전회(三中全會) 이후, 중국공산당의 과제 중점이 경제건설로 전이되었고, 국가의 각종 정책도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이 평화공존5항원칙을 견지하고,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정책을 지지한 것은 경제발전이라는 내적 수요 때문이었다. 중국 제2세대 지도자 덩샤오핑은 1982년부터 중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점차 조정을 실행하였다. 중국외교 전략의 전면조정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역시 더욱 융통성 있고 실리적으로 변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후, 이데올로기로써 대외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

1980년대 미·소 알타체제 속에 이미 '다극화' 추세가 내재되어있었다. 1980년 대,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의 일반적 특징은 첫째, 중국은 베트남을 제외하고, 모든 주변 국가와 관계를 우호적으로 개선하였다. 비록 중국과 한국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으나, 민간형식의 교류는 증가하였고, 경제무역관계가 급속 발전하여 외교관계 수립에 기초를 다졌다. 둘째, 경제 요소가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상승하였고, 경제무역관계가 중국과 주변국가와의 발전에 중요한 연결고리 작용을 하였다. 셋째, 1982년 후, 중국은 '독립자주평화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어떠한 대국과도 동맹을 맺지 않으며, 중국외교의 중점이 개혁개방·평화발전·현대화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1991년 알타체제가 붕괴된 후, 국제는 '전쟁'과 '혁명'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것이 역사의 조류가 되었다. 냉전시기, 동서 진영은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로써 동맹을 결성하였다. 냉전이 종식된 후, 현재는 국가정책에서 경제적 요소의 작용이 갈수록 상승하고, 이데올로기의 역할은 크게 하락하였으며, 대외정책 제정의 근거는 국가이익 특히 경제이익이 중점이 되었다. 냉전 후, 갈수록 커진 경제적 상호의존은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재적 기초가 되어 지역경제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중국이 희망하는 역사 조류는 정치 다극화; 경제 세계화; 국제관계 민주화와 발전 모델의 다양화이다. 국제정치신질서는 세계 문명과 각국 발전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51) 王正毅：『世界體系論與中國』，北京：商務出版社，2000，p349.

중국공산당은 제15대와 제16대에서 국제정치신질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중국공산당 '15대(十五大: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 1997년 9월 12일-18일)'는 10가지 대외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덩샤오핑의 외교사상을 견지하고, 독립자주의외교정책을 시종 봉행(奉行)한다. 둘째,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지킨다.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경제신질서를 추진한다. 넷째,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다섯째, 선린우호를 견지한다. 여섯째, 제3세계 국가와의 단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일곱째, 평화공존5항원칙에 입각하여 선진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여덟째, 호혜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세계 각국·지역과 광범한 무역 왕래, 경제기술 협력과 과학문화의 교류를 확대한다. 아홉째, 다자외교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한다. 열 번째, 독립자주·완전 평등·상호존중·상호내정불간섭 원칙의 기초 하에 중국공산당과 교류하는 각국과 새로운 당제(黨際)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다.⁵²⁾로 요약된다.

중국공산당은 '16대(十六大,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2002년 11월 8일-14일)'에서 '국제정치평화'와 '경제발전'을 강조하였다. 중국공산당 16대는 정치, 경제, 문화와 안전 등 4개 방면에서 국제정치신질서를 강조하였다. 첫째, 정치상, 상호존중·공동협상·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 것(『論語·顏淵』: 己所不欲, 勿施於人)을 제안하였다. 둘째, 경제상, 상호촉진·공동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문화상, 상호학습·공동번영·기타 민족의 문화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넷째, 안보상, 상호신뢰·호혜평등·협조의 '신안전관(新安全觀)'을 추진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무력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16대 보고는 공정한 국제정치경제신질서를 수립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근본이익에 부합하고, 각종 형식의 패권주의와 강권주의를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16대 보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문제를 논의의 수위에 두고, 주변국가와 제3세계 국가를 각각 제2와 제3위에 놓았다. ⁵³⁾ 특히 16대는 알타체제가 붕괴된 후, 세계는 다극화로 나아가고 있으므로, "중국은 반드시 역사 조류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화평굴기(和平崛起)와 종번관계(宗藩關係)의 현대성

1) 화평굴기의 함의

굴기는 국제지위의 제고이다. 국제지위는 다른 국가의 실력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이며, 자신의 실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굴기의 함의를 세계강국으로의 부상으로 이해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작용과 역할이 상승하고, 영향력이 증대되며, 주도적 지위를 선점하고 있는 국가와 국제질서에서 주도권을 공유하는 것이다. 굴기의 과정은 국제지위의 부단한 상승이며, 최강대국의 지위에 계속 근접하는 과정이다. 굴기는 본질적으로 제로섬(Zero-Sum) 성질을 가졌다.⁵⁴⁾

중국이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적 부상, Peaceful Rise)를 제기한 표면적 의도는 적어도 과거처럼 지역체제에서 명분을 얻기 위해 종번관계(宗藩關係)·화이질서(華夷秩序)를 다시 구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직면한 현실적인 환경에 의거해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안한 '유소작위(有所作為: yǒu suǒ zuò wéi)'의 구체화가 바로 굴기이다. 그러나 화평굴기의

52) "和平與發展主題時代的新階段與中國對外工作的新思路-學習十六大報告的思考", 『國際政治研究』, 2003年 第1期, 15.

53)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暨 『國際政治研究』編輯部學習十六大報告學術研討會綜述, 『國際政治研究』, 2003年 第1期, 11.

54) 閻學通, 孫學峰 等著: 『中國崛起及基戰略』,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pp3-4.

제기는 중국이 1990년부터 시작한 '도광양회(韜光陽晦: t o g u n g y ŏng huŏ)' 외교정책의 종결을 의미한다.

2) 화평굴기의 조건

중국은 과거 패권국이 걸어왔던 패권의 역사와 경험에 비추어 화평굴기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화평굴기의 국제조건은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주권의 합법성에 대한 광범한 승인과 존경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주권 지위가 상당한 기간 내에 어떠한 의심과 도전도 받지 않아야 한다. 둘째, 중국의 화평굴기는 평화적인 주변 환경에 의존한다. 중국은 화평굴기를 국가의 주요 목표로 삼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유지하기 위해 선린우호외교를 실시하고 있다. 화평굴기의 정책은 대외침략과 확장을 통해 타국의 자원을 약탈하거나 정치체제를 바꾸고 심지어 타국의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다. 셋째, 화평굴기의 정치조건은 중국 정치체제의 안정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굴기는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과 같은 모험적인 정책은 국가와 국민에게 재난을 안겨줄 뿐이다. 1967-1976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10년 정치 혼란은 중국 발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 왔다. 넷째, 화평굴기의 경제조건은 중국 인민생활의 기본 보장·대규모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 생산 능력·선진국과 과학기술 격차 축소 등이다. 국제정치 영향력의 부단한 확대에 따라, 굴기하는 중국은 상당한 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⁵⁵⁾ 중국의 화평굴기의 목표는 '국제사회로의 융화와 진입'에서 '더 많은 국제책임을 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3) 화평굴기의 한계

유가는 '화(和)'⁵⁶⁾를 중요시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추구하며, '대동사회(大同社會)'를 목표로 한다. 중국은 유가철학과 문화가치 이념이 바로 화평굴기의 문화 동력이라고 주장하지만, 화평굴기의 진의에 대해 많은 주변국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미(羈縻)정책은 AD3세기에서 668년까지 중국 분열시기에 형성되었으며, 중국의 실력이 쇠약했을 때의 타협정책이었다. 즉, 중국에게 기미정책은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유효한 통치를 할 수 없던 시기의 임시적인 타협책이었다. 그러나 일단 중국이 통일을 회복하고, 실력이 갖추어지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내부에 개입하고 간섭하였다. 대표적 예가 수당(隋唐)의 고구려 침략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관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⁵⁷⁾ 중국이 스스로 화평굴기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55) 閻學通, 孫學峰 等著: 『中國崛起及基戰略』,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p9.

56) '화(和)' 관념은 '덕(德)'과 같이 고대 중국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철학 관념이다. 『상서(尙書)』가 처음으로 '화(和)'의 사상을 제창하였다. 『尙書·康誥』는 "사방민대화회(四方民大和會)"를 칭송하였다. '화(和)' 관념의 철학적 서술은 『國語·鄭語』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기원전 8세기, 주(周) 왕조 태사(太史) 사백(史伯)은 정환공(鄭桓公)과 주(周) 왕조 쇠락의 문제를 토론할 때, 주(周) 왕조 쇠락의 원인은 주유왕(周幽王)이 정치적으로 '거화취동(去和取同)', 즉 자기와 다른 것을 배척하고, 다른 의견을 거절한 것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백(史伯)은 이로써 화(和)의 철학적 의의를 설명하였다. 즉 화(和)는 다른 사물 간 결합·보충·배합·협조·형평이고, 다양성의 통일이며, 대립을 초월하는 것이다(朱貽庭 主編: 『儒家文化與和諧社會』, 上海: 學林出版社, 2005, pp15-16).

57) 楊軍, 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年 8月, pp140-143.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중국은 능력의 한계로 인해, 국제질서의 창조자·추진자로서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굴기 과정 중, 줄곧 '화평굴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나, 화평굴기는 중국의 규범적 목표(ought to be)이지, 현실적으로 중국이 반드시 평화적으로 부상할 가능성(should b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VI. 결론

이상 동아시아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와 북·중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에 대해 필자는 세 가지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중국이 구축해온 고대 동아시아 지역 체제-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형성된 워싱턴체제·알타체제로 대체되었다. '주권평등'·'국제법'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불평등한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소멸된 것은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조공종번(朝貢宗藩)체제가 사라진 한반도에는 또 다시 비대칭적 동맹(同盟)의 질서가 자리 잡았다. 종번관계와 동맹관계는 모두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기제이나, 한반도는 시종 종속변수였을 뿐이다. 중국과 한반도의 종번관계가 청일전쟁 후 국제관계 역학구도의 변화로 인해 종료된 과거사이거나, 한반도에는 여전히 대국을 향한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 Psychological Suzerain-Vassal Relations)' 의식이 잠재해있으며, 중심·주변, 우월감·불평등 구조가 일종의 '관념'으로서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체제에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는 전쟁 등 위기 때마다 유아모체이탈(乳兒母體離脫)의 정서불안을 표출하였으며, 심리적종번관계(心理的宗藩關係)에 의존하였다. 아울러 대국 역시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관건이 되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4강은 세력균형전략으로써 한반도를 자신들의 세력범주로 종속시켰다. 성숙하고 자주·자존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스스로 대국을 향한 '심리적종번관계'를 초월해야 한다.⁵⁸⁾

둘째,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은 한국전쟁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질서 구축을 위한 침략전쟁이며, 항미원조는 북한의 주권과 중국의 지역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전쟁이라 항변한다. 중국은 일본의 한일합방이든, 미국이 개입한 한국전쟁이든 모두 중국이 구축해온

58) 2009년 11월 15일, 필자가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에서 장원링(張蘊嶺) 소장과 인터뷰를 할 때, 장원링(張蘊嶺) 소장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피력하였다. "한국 학자들은 항상 세계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저는 한국 학자들에게 한반도 통일은 당신들 민족 내부의 문제인데 왜 자꾸 중국의 눈치를 보느냐고 대답합니다." 장원링(張蘊嶺) 소장은 동북아시아의 미래 안보는 한반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국관계의 재정립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원링(張蘊嶺)은 장차 10-15년 내에 한민족(韓民族)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본 틀에 관한 합의를 달성하고, 중국적으로 통일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중국에 미칠 영향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첫째, 중국은 안정적인 평화적인 정세, 협력의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통일된 한반도가 분열된 한반도보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시아 각국이 협력해서 건립한 지역안보기제가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질서보다 동북아 지역 국가이익에 더 잘 부합한다고 강조하였다. 장원링(張蘊嶺)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둘째,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북한의 지역협력기제 참여. 셋째, 한반도 영구평화기제 구축.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終戰宣言)을 발표하고, 한국과 북한이 평화조약(平和條約)을 체결해야만, 한반도의 '냉전'이 진정 종식될 수 있다. 현재, 한반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남북 쌍방이 화해와 협력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여, 정치·경제·군사 등 영역에서 자주·평화통일의 기초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체계에 대한 미·일 제국주의의 침투로 간주한다. 북한 역시 한국의 흡수통일 구상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흡수통일을 시도한다면, 북한은 한국에게 흡수되어 주권을 상실하느니, 차라리 전쟁을 택할 것이다. 북·중 간의 심리적종변관계(心理的宗藩關係)는 중조우호조약보다 더 장기적이며 견고하다.⁵⁹⁾

셋째,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사상·덩샤오핑(鄧小平)이론·장쩌민(江澤民)의 삼개대표(三個代表)·후진타오(胡錦濤)의 조화사회(和諧社會)·당정(黨政)일체의 통치시스템·사회주의 이데올로기·중국특색의 사회주의·중화역사의 미화·종합국력의 신화·피해의식의 기득권화·미국 패권주의와의 적대적 제휴·중화민족주의의 고양·GDP 신화창조 등 국가이익·국내 수요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포괄하여, 대국(大局)적·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중국은 세계전략의 일부로서 한반도를 바라보며, 한반도 문제로써 세계를 보지는 않는다. 반면, 한반도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모색한다. 냉전 시, 정전기제(停戰機制)는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 쌍방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으나, 정전기제(停戰機制)는 한국전쟁의 슬픈 유산이다. '정전협정(停戰協定)'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결코 해결 할 수 없고, '정전협정(停戰協定)'과 그 후 수반된 일련의 중조동맹·한미동맹은 강대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합법화와 제도화가 되었으며,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더욱 고착화 할 뿐이다.⁶⁰⁾ 한반도의 정전체제(停戰體制)를 평화조약으로 전환시키고,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정전협정(停戰協政) 서명 국가인 미국·북한·중국과 비서명 국가인 한국의 관건적인 문제이다. 중국 총리 원자바오(溫家寶)도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지도자회의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체결국으로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기제 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의 영구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길 희망하고, 한반도 남북 쌍방의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을 가속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⁶¹⁾ 평화와 발전·국제정치신질서의 역사 조류에 부합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북·중 간 '심리적종변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59) 2009년 11월 20일, 필자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AR)에서 조선반도연구실 치바오량(戚保良) 주임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할 때, 치바오량 선생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반드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외교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 인(仁)한 마음, 즉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치바오량 선생 그 자신도 북한에 대해 상당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표시하였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 대해 말하길 "현재 남북은 화해와 통일의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60) 何志工, 安小平: 『東北區域合作: 通向東亞共同體之路』北京: 時事出版社, 2008, 7, pp304-305.

61) "中方積極參與與建立朝鮮半島和平機制進程", 國際在線, 2007년 11월 20일.